

【 국내금융 뉴스 】

금융분쟁 전년대비 37.9% 증가

- 2009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28,988건으로 전년대비 37.9%(7,963건) 증가했으며,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61.0%(709건), 보험 46.9%(6,880건), 은행·중소서민금융 7.2%(374건) 순으로 나타남.
- 분쟁접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금융투자 분야는 펀드수익률 하락에 따른 펀드 관련 분쟁과 증권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 전산장애 분쟁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보험분야는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해약 증가와 이로 인한 보험모집관련 분쟁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권역별 비중으로는 생명보험이 38.6%(11,193건)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 35.7%(10,349건), 은행·중소서민금융 19.2%(5,574건), 금융투자 6.5%(1,872건) 순임.
- 처리된 금융분쟁에 대한 권역별 현황은 생명보험이 10,661건, 손해보험 10,212건, 은행·중소서민금융 6,976건, 금융투자 2,225건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62.6% 늘어난 30,074건을 기록함.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모집 관련 분쟁 처리가 가장 많았고, 면부책 결정 관련 분쟁,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성상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음.
 - 금융투자 분야는 펀드관련 분쟁 처리 건이 가장 많았으며, HTS 장애관련 분쟁, 매매주문 관련 분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행·중소서민금융 분야도 금융투자와 같은 펀드관련 분쟁 처리 건이 가장 많고 여신 및 신용카드 분쟁 처리가 뒤를 이었음.
- 금감원은 2008~2009년 분쟁증가의 원인인 펀드관련 분쟁이 금융위기 해소에 따른 주가지수 상승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보험권역 해약을 수준의 더딘 회복과 보험금 산정 분쟁 등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함.
- 이에 금융당국은 분기별로 분쟁발생 현황 및 추이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 능력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분쟁 및 소제기 감축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임.

(2009년 금융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3/8)